

“고유가가 바꾼 자금조달 환경… 투자 패러다임 전환”

인터뷰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부문 대표

“변화 속에서 버티는 구조 ‘핵심’ 이익 규모보다 성장 속도 관건 채권 비중 높이고 주식 혼합 중심”

“지금 시장은 단순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가 바뀌고 있는 국면입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부문 대표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증시 변동성을 ‘이벤트’와 ‘구조 변화의 갈림길’로 규정했다.

그는 “휴전이나 종전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고유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냐”라며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 되면 기업의 비용 구조를 넘어 자금조달 환경까지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다.

20여년간 거시경제와 자산배분을 연구해온 박 대표는 3월부터 리서치센터장에서 투자전략부문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분석 중심의 역할에서 상품과 자금 흐름을 다루는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제는 숫자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 실제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더 많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고유가가 흔드는 시장… ‘핵심은 자금 흐름의 변화’

박희찬 대표는 이번 장세를 단순한 변동성 국면으로 보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전쟁과 유가 상승이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본질은 ‘자금조달 환경 변화’에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그동안 시장은 환율이 내려가고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을 전제로 움직여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전제가 깨지면서 자금조달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가 기대만큼 내려오지 않으면 크레딧 리스크가 커지고, 회사채 발행이나 투자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나 자본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는 특정 자산군에 국한되지 않는다. 박 대표는 “사모신용 시장에서 나타나는 긴장감이 AI 투자 자금, 나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금 흐름이 약해지면 투자 규모뿐 아니라 속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부문 대표

/미래에셋증권

특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이익이 좋고 실적이 나오는 것과 주가가 오르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시장 기대 대비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 밸류에이션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아니라 ‘증가 속도’”라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긍정과 한계를 동시에 언급했다. 박 대표는 “예금에서 투자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 이른바 머니무브는 이미 지난해부터 나타난 구조적 변화”라

면서 “다만 이 흐름에는 포모(FOMO·기회상실공포) 성격이 섞여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수급 역시 “큰 흐름에서는 이탈이 시작된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수익보다 구조”…채권·자산조합 재설계 필요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박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맞추는 투자’가 아니라 ‘버티는 구조’다.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보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는 판

단이다. 그는 “투자 자산이 특정 국가나 자산군에 과도하게 쏠려 있으면 시장이 꺾일 때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된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되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적절히 분산된 구조를 가져가야 전체 포트폴리오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권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라진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는 채권의 매력에 떨어진다”고 봤지만, 지금은 금리와 재정 환경을 고려하면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며 “채권 비중을 일정 수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형태의 전략이나 상품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 하방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끝으로 “지금 시장은 방향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구간”이라며 “투자의 본질은 결국 균형과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정은보 “육천피시대, 자본시장 체질 개선중”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생태계 50조 투자

<한국거래소 이사장>

ROE·PBR 등 주요 지표 개선 상장사 지배구조 ‘의무공시’ 확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코스피 6000 시대’를 두고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4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ICGN 코리아 컨퍼런스 2026’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자본 시장의 체질 개선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국내 증시에 대해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6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지표도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ICGN과 공동으로 개최한 ‘ICGN Korea Conference 2026’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

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며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의무공시가 전면 확대된 점을 짚었다. 그는 “2017년 자율공시 방식으로 기업 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공시 범위를 확대해왔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지배구조 의무공시 대상이 코스피 전 상장사로 전면 확대돼 기업의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융위, 바이오·미래형 모빌리티 등 장기·대규모 ‘인내자본’ 중심 투자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바이오·디스플레이·인공지능(AI)·미래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차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인내자본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며 “첨단산업 투자전쟁과 에너지전환 국면에서 적시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2차 메가프로젝트는 단일 산업

/허정윤 기자

이 아닌 첨단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겨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바이오·디스플레이·미래형 모빌리티·소버린 AI·재생에너지·새만금첨단밸트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0조원 이상을 투입해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민관합동펀드 35조원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조성해 ‘투자의 공백을 메우는 자금’ 역할을 맡기고, 직접투자 15조원은 대규모 설비·양산 자금 등 전략 영역에 집중 투입한다.

투자 방식도 변화한다. 기존 정책펀드가 단기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되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대규모 ‘인내자본’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초장기 기술투자, 스케일업 펀드, M&A 및 코스타 투자 지원 등을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전면 점검

주주권 행사 책임 강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주주권의 보호와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주주권 강화 흐름 속에서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형식적 의결권 행사와 부실 공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자본시장법 제87조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2023년 10월),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유도해왔다. 올해는 기존 공시 점검에 더해 공모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우선 2025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약 500여사를 대상

으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의결권 행사 또는 불행사 사유의 충실한 기재 여부, 내부 지침 공시 여부, 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등 형식적인 사유를 기재하거나 의결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사례는 미흡 사례로 판단한다. 반면 안전별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경우는 모범 사례로 평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모운용사 77개사를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별도로 점검한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ELW 461종목 신규 상장

지수형 39종·종목형 422종 구성

한국투자증권은 주식위험트증권(ELW) 461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39종목과 삼성전자, LG넥스원, 삼성중공업, 한화에너지스페이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422종목이다. /허정윤 기자

ELW는 개별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상승을 예상하면 콜 ELW, 하락을 예상하면 풋 ELW를 매수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만기 시 원금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